

# 31-222 to 31-225: 아벨의 사명

hdhstudy.com/1970/31-222-to-31-225-%ec%95%84%eb%b2%a8%ec%9d%98-%ec%82%ac%eb%aa%85/

아벨의 사명

1970.06.03 (수), 한국 전본부교회

31-222

아벨의 사명

[말씀 요지]

복귀하는 데는 반드시 탕감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탕감복귀는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의 순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31-222

가인 아벨의 결정은 죽고 사는 자리에서

탕감을 하려면 반드시 가인과 아벨이 있어야 한다. 탕감복귀역사는 종의 시대를 거친 후 양자의 시대를 거치고, 자녀의 시대를 거치고, 형제의 시대를 거쳐야 된다. 2차대전이 끝나면서 강대국들이 모든 식민지를 내놓고 약소민족을 해방한 것은 바로 평화적인 관계, 즉 형제의 관계를 이루는 외적인 현상이었다.

민주진영도 둘로 갈라지고 공산진영도 둘로 갈라지게 되면 형제의 시대가 왔다는 증거이다. 그런 후에 부모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미국이 원조를 끝내고 후퇴한다는 것은 하늘편에서 장자권이 성립되어 차자편을 도와 주는 때가 되었다는 표시이다.

형제의 인연은 직계의 아들이라야 맺을 수 있다.

여러분은 역사적인 결실체다.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존재로 결정되었다는 뜻이다.

탕감원칙은 3시대권의 원칙이다.

형제의 인연을 갖추지 않고는 탕감복귀가 안 된다. 가인이 있어야 되며, 아벨이 제물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하나되어야 한다. 제물과 사람이 하나되어야 한다.

탕감조건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고개에서 반드시 피를 봐야 세워진다. 여기서 제물은 죽고 사람은 살아 남아야 한다. 이것이 십일조의 원칙이다. 이 조건에 부합되면 하늘편이요, 부합되지 않으면 사탄편이다.

여러분이 돈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인격이 있어야 하고, 언행심사가 일치해야 한다. 즉, 공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한다. 제사장의 물건은 공적인 것이다.

아벨은 반드시 가인보다 나아야 한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자리에서 아벨이 침범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인적인 사람으로 삼위기대를 세워서 하나되어야 한다. 그러면 탕감없이 넘어간다. 나를 대신해서 나가 싸워 승리할 사람이 있으면 된다.

개인 앞에 세 사람, 세 가정, 세 씨족이 있어야 하고, 교회 앞에 세 교단, 세 종파가 있어야 한다. 책임자가 직접 선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 입장의 3인을 앞에 세워 일해야 한다.

죽고 사는 자리에서 가인 아벨이 결정된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일선에서만 탕감된다.

제사드리는 자리에는 제물만 가지고 나가 그 제물과 하나되어야 한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의 기대를 통해서 누가 낫다 하는 것이 결정된다. 거기서부터 실제 기대가 성립된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아벨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인도 있어야 한다.

31-223

완전히 아벨이 되어야

애국애족하는데 있어서도 대통령보다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 이상의 자리에서 극복해야 한다. 사탄이 머리 숙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서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사는 군이면 그 군에서 내가 몇째 가느냐?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살기 때문이다. 최고의 충(忠)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통일교회 교인은 국가의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의 누구보다도 그런 면에서 나아가야 한다.

기성교회나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치리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실제기대를 세울 수 없다. 그때까지는 투쟁의 과정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남한)이 완전히 아벨이 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려면 무엇이든지 남한이 북한보다 나아가야 한다. 북한이면 북한에 가라고 해서 가면 안 된다. 국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삼팔선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남한의 민족대표로 섰다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 땅의 어느누구보다도 정성을 들이는 데 있어서 나아가야 한다. 외적으로는 못한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 그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탄이 굴복한다.

일본이 한국을 돕게 되면 일본나라가 하늘 앞에 빨리 복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성교회와 하나되면 국가에 대해 아벨이 되고, 대한민국과 하나되면 대한민국이 복귀에 대해 아벨이 된다. 우리가 대한민국과 완전히 하나되기 전에 하나의 국가인 일본과 하나되어도 복귀는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와 일본이 하나되는 것이다. 하나되기 위한 대표적인 일이 국제결혼이다.

아담형 국가인 한국과 해와형 국가인 일본, 그리고 천사장형 국가인 중국만 하나되면 아시아권의 예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계적인 천사장형 국가는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이 사명을 못하면 독일이 대신 입장에 서게 된다. 기성교회가 일찌기 이 뜻에 협조했다면 원래 해와형 국가는 일본이 아니고 영국이 되었을 것이다.

통일교회가 종교를 넘고 국가를 넘어 인정받는 것은 믿음의 기대를 완결지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단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실제 복귀를 하기 위하여 주고 용서하면서 야곱과 같은 입장에 서야 한다.

기성교회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미워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감사하게 느끼며 '이제는 잘사소서' 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혼자 잘살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살자는 것이 된다.

기성교회의 장로이면서 국가기관의 부장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우리를 납득하게 했다는 것은 가인의 역할을 잘한 것이고, 이 일에 열심히 협조한 국장은 천사장의 역할을 잘한 것이다. 때가 되면 표창이라도 해야 한다. 괜히 신이 나서 돕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구보끼(久保木修己)가 와서 도왔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내적으로 하나되었다는 증거이다.

31-225

나라를 사랑한 실적을 남기자

지금은 가정을 중심한 탕감시대다. 불효자와 역적은 자기 혼자 되지 않는다. 부모 처자가 관련되어 있다. 즉, 정적인 동기로 인해서 되는 것이다.

이번 7백쌍 합동결혼식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일곱 번째 축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이것은 세계적인 잔치이다. 그래서 7년노정에 참가하는 것이 귀하다고 하였다.

매일매일 되어지는 일, 자기가 한 일을 부모님께 보고하여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야 발전이 있다.

누구든지 본부에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 예물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나라를 사랑한 실적이다.

기성교회를 위하여 초교파운동을 한다. 그리고 전체 종교를 위하여 종교협의회운동을 한다. 또 국가 민족을 위하여 승공운동을 한다. 초종파적인 종교협의회의 기반을 닦아라.

원리연구회를 승공활동을 하는 학생회로 만들라. 각 대학에서는 방과후에 반드시 강의를 하라. 승공이념은 통일사상을 배경으로 하였다. 승공학생회를 조직하여 통일사상으로 무장하라. 매 지구당 남자 3명, 여자 1명씩의 공작요원을 뽑아 보내라.

생활면에서 심정을 배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라. 몽시를 통해서라도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전체 앞에 현창(顯彰)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적어도 한 지구에 두세 사람씩은 있어야 한다. 자신이 못 통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늘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물어봐 가면서 운영해야 한다.

거기에는 직통형, 중간형, 반대형의 종류가 있다. 계시나 지시는 받는 사람의 것이다.

신앙생활은 종합적인 생활이다.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